14. 양분관리제란?

○ 모든 자원화 시설(퇴비, 액비, 에너지화)의 공통 기준

- 양분관리제는 농업환경(물, 대기, 토양)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나 퇴비·액비, 화학비료 등 양분(질소, 인)의 투입·처리를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로, 일정 기간·범위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'양분수지'를 관리한다.

○ 양분관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?

-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(212kg/ha), 인 수지 2위(46kg/ha)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하다.

○ 양분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우수사례집 제공

- 이에 환경부에서는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양분관리 우수사례로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제공하였다.

*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(www.nier.go.kr) 〉 홍보/소식 〉 홍보 간행물 〉 국립환경과학원_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

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, 가축분뇨로 만든 고품질 퇴비나 액비를 활용함으로써 토양에 투입되는 양분량을 줄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벤치마킹이 가능하다.

(축산환경과 / 063-238-7401)